국보 1호인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광주지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들 방화 추정 사건은 사회적인 불만을 불로 표출하는 일종의 '묻지마 방화'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 잇단 화재…숭례문 신드롬?

'묻지마 방화'

대학 잔디밭·주택가 등 빈발

광주·전남 곳곳 산불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0시45분께 북구 용봉동 C대학 사범대 3호관 앞에서 불이 나 잔디 3㎡를 태웠다.

이후 이날 새벽 1시45분까지 50~100여m 간격으로 1시간 동안 인근 예술대 3호관, 구 중앙도서관 건너편 대나무 밭, 인문대 3호관 잔디밭 등에서 모두 4건의 연쇄 화재가 나 잔디 16㎡가 소실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에 불을 지르지 않은 것으로 봐서 우발적인 장난이나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보이나 숭례문 화재 이후 일어난 불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고 수사 중이다"며 "대형 방화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 7시10분께는 광주시 남구 백운동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그랜저 승용차에서 불이나 6분만에 진화됐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과 엔진 결함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 새벽 3시35분께에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T원룸 이모(여·30)씨의 집에서 불이나 27㎡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해 입주자 고모(39)씨가 연기를 피해 2층에서 뛰어내리다 다치는 등 거주자 9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의 애인 장씨가 술을 마신 뒤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나를 무시한다'며 이씨를 때린 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마음사랑정신과의원 최재영 원장은 "방화범의 경우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데다 분노와 적개심을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17일 오후 1시25분께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산부락 인근 야산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0.3ha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다.

또 지난 15일 오후 6시54분께에는 광주시 남구 덕남동 덕남정수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등 2ha 가량을 태웠다. 한편,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9건의 화재가 발생해 1.79ha의 임야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행기자 golee@

"보리야 튼튼하게 자라렴" 17일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학산마을의 드넓은 보리밭을 찾은 어린이들이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보리의 웃자람을 막기 위해서는 이맘때쯤 보리밟기를 해주어야 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타르 찌꺼기 계속 유입

전남 어민 2천명 오늘 특별법 촉구 상경 집회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인해 전남 서해안에 타르가 유입된 지 50일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수거되지 못한 무인도나 바닷속의 타르가 신안·무안·영광 해변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무안 해제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해제면 해안에 타르가 첫 유입된 이후 지금까지 수거작업을 벌였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한 무인도 등의 타르가 소량이나마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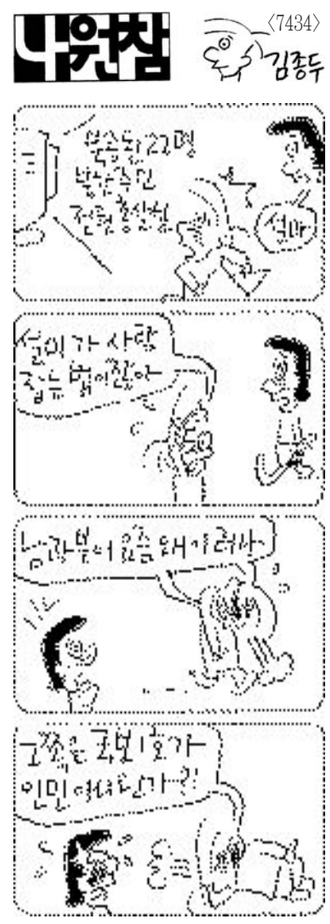
주민들은 사리 때나 풍랑이 거센 날이면 소량이지만 타르가 해안 곳곳에 유입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정해역을 하루 빨리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인도나 갯바위 등에 붙어 있는 잔여 타르를 모두 제거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타르 피해를 입은 전남 서해안 어민들의 손해 배상을 위한 피해자 측 피해조사 기관이 선정됐다. 17일 전남 영광·신안·목포 수협과 피해대책위는 최근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컨소시엄과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와 목포대 갯벌연구소가 참여해 면허·허가·신고 어업권자, 김 가공업체 등의 연평균 생산량, 소득액 등을 검토해 손해액을 산출한다.

한편 전남 지역 어민 2천명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갖고, "4·9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유류피해 특별법 제정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리산 반달곰 뒤늦은 동면

온난화 영향 1~2개월 늦어

따뜻한 겨울과 적설량 부족으로 겨울 잠을 이루지 못하던 지리산 반달곰이 드디어 동면에 들어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에서 지내고 있는 반달가슴곰 16마리 중 마지막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곰이 지난 13일 동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반달곰이 동면을 시작한 시점은 예년보다 1~2 개월 늦은 것이다. 지난 2005년 겨울에는 이듬해 1월 11일에, 2006년 겨울에는 그해 12월 23일에 동면에 돌입했었다.

공단은 "동면이 늦어진 것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적은 적설량 때문이다"고 말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이배근 복원팀장은 "동면이 늦었다고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04년부터 연해주산과 북한산 반달가슴곰 26마리를 지리산에 방사했으며 이 중 폐사 혹은 실종된 10마리를 제외한 16마리가 자연상태에서 지내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군대 동기 술 사주려 강도짓

쌍나팔

○…군대 동기에게 술을 사주기 위해 강도짓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술집에 침입, 주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 한 대학생 이모(23)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17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모 술집에 들어가 '치대 학생인데 오늘 12명이 참가하는 모임이 있어 예약을 하겠다'며 내부를 살펴본 뒤 주인 B(여·52)씨를 넘어뜨리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

○…이씨는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상인 2명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으며,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군대 동기에게 술을 사주려 했으나 술값이 없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여고생 투신 자살

17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W아파트 1층 출입구 지붕에 이 아파트에 사는 신모(17·영광 H고 2년)양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 이모(4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 밖에 나가보니 신양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양이 이날 오전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유족들의 말에 따라, 신변을 비관해 투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

로스쿨 심사 순위 공개 불구 반발 여전

조선대 "자료 일체 공개…의혹 없애야"

교육부가 최근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별 평가 점수대 및 순위, 정원배정 원칙 등을 공개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조선대는 17일 "교육부의 총점 및 순위 공개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지만 심사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는 여론을 호도해 대학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기만행위"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로스쿨 예비인가 세부항목별 점수와 심사위원 개인채점 결과 등 심사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해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서울대 호문혁 법대 학장은 "로스쿨 정원 150명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으며 학교별 정원에 상한을 두는 것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장덕조 법대 학장도 "총점이나 순위만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점수와 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로스쿨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가 2위 대학보다 30점이나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해 가장 많은 15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고 2위 그룹으로 묶인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는 각 120명씩 배정받았다.

아주대, 인하대, 강원대, 제주대 등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40~50명의 정원이 배정됐으며, 각 권역별 최고 성적을 낸 전남대와 경북대, 부산대는 120명의 정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전권역 최고점을 받은 충남대는 다른 세 곳의 상위권 대학보다 15점 이상 낮아 100명을 배정받았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